

	보도자료 (2019. 2. 22 금) 국회미래연구원 http://www.nafi.re.kr (02) 2224-9812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	---

국회미래연구원 · 대한예방의학회 · 한국역학회 · 이인영의원실 공동 심포지엄 개최

-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제2차 심포지엄 -

- 요약 -

대한예방의학회(회장, 최보율), 한국역학회(회장, 김동현), 이인영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미래연구원(원장,朴進)은 2월 25일(월) 오후 1:00부터 6:00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제2차 심포지엄’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심포지엄에서는 작년 6월의 1차 심포지엄 이후 무르익어 가는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 분위기 하에, 보건의료 분야를 아우르는 북한의 정치, 경제 및 사회를 전망하고 환경보건을 포함하는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제1부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북한 사회의 전망과 통일 공론화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제2부에서는 북한의 환경보건 현황과 협력방안과 남북 보건의료 협력 로드맵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별첨 참고).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공동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에 있어 배제할 수 없는 요인인 북한에 대한 미래 전망과 영역별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끝>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허중호
(02-2224-9812, joheo@nafi.re.kr)

※ 2019년 2월 26일(화) 조간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평화가 무르익어 가는 이때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역할과 발전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최보율), 한국역학회(회장, 김동현), 이인영의원실(더불어 민주당),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2월 25일(월) 오후 1:00부터 6:00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제2차 심포지엄’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제1부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북한 사회의 전망과 통일 공론화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제2부에서는 북한의 환경보건 현황과 협력방안과 남북 보건의료 협력 로드맵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제1부 북한 사회의 이해와 전망

“북한 정치경제 분야의 미래”, 유재광 부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김홍범 연구지원실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재광 부연구위원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북한의 정치 및 경제 예측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시나리오 기법에 바탕을 둔 미래예측 기법으로 북한을 둘러싼 주요동인 및 돌발변수를 식별하고 전문가 의견에 근거한 종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도출된 종합 시나리오로는 ‘북한체제의 유지’, ‘북한체제의 정체’, ‘북한체제의 전환’, ‘북한체제의 파국’이 도출되었고 이중 전문가들이 꼽은 최가능 시나리오인 ‘북한체제의 유지’(권위적 정상국가 모델)이 선정되었다. 정책적 대응으로는 북한 민주화 유도 및 촉진, 북핵문제 다자적 해결 및 동북아 안보 공동체 구축을 들었다.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결과와 함의”, 이채정 부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작년 12월에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 공론조사에서는 서울·인천·경기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및 고교생(16세 이상) 240명을 대상으로 미래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6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숙의과정을 통해 2030년 및 2050년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최종 견해를 도출하였다. 공론조사 결과, 남북한 관계는 현재와 같은 적대국가 관계에서 우호국가 관계(2030년)를 거쳐 연방국가 관계(2050년)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낮은 수준의 남북한 통합 유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통일에 대한 입장 및 통일시기에 대한 견해 모두 유보적 성향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기존 정부의 현상유지 또는 통일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남북한 통합의 다양한 유형을 제안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제2부 남북 보건의료 협력

“남북 보건의료 협력 로드맵 제안”, 신영전 교수(한양의대)

제2부에서는 최보율 대한예방의학회장의 좌장 사회 하에 보건의료 영역에 집중된 발표와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순서로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의 남북 보건의료부문 협력 로드맵 제안이 있었다. 신영전 교수는 과거 정권부터 현재까지 남북 관련 정치 및 보건의료 분야의 흐름을 짚어보고, 최근 남북접촉에서의 보건의료 협력 분과회담 등 보건의료관점에서의 의미 있는 사건들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 촉진을 위해 보건의료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10대 중단기 과제들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교류협력 로드맵을 제시였다.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보건 협력 제안”, 명수정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수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환경보건 관련 현황을 소개하며 북한에서 사망한 사람의 상당수가 호흡기 질환과 설사병 등과 같은 환경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며 북한의 환경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 관련 상세 정보수집과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

석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도 질병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 인프라 조성과 대기오염 저감, 위생의식 개선 등의 환경과 연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추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허종호
(02-2224-9812, joheo@nafi.re.kr)

[별첨] 공동심포지엄 포스터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제2차 심포지엄



| 일시 | 2019년 2월 25일(월), 13:00-18: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프로그램		
13:00-13:30	등 록	
13:30-14:00	개회사	사회: 기모란 교수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 최보율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축 사	이인영 남북국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제 1부 북한 사회의 이해와 전망		좌장: 김홍범 연구지원실장 국회미래연구원
14:00-14:20	북한 정치경제 분야의 미래	유재광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14:20-14:40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결과와 합의	이채정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14:40-15:10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차정미 박사 연세대 통일연구원 / 이상신 박사 통일연구원
15:10-15:30	휴 식	
제 2부 남북 보건의료 협력		좌장: 최보율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15:30-16:00	남북 보건의료 협력 로드맵 제안	신영전 교수 한양의대
16:00-16:20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보건 협력 제안	명수정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6:20-17:50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정해관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진숙 서기관 보건복지부 김상국 과장 통일부 최혜경 사무총장 어깨동무 강영식 사무총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김양중 기자 한겨레 신문
17:50-18:00	폐 회	

사전등록 2019년 2월 20일(수)까지

방 법 이메일(kspm2018@daum.net) 접수

비 용 무 료

※ 사전등록 하지 않은 경우 자료집 배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 회



KSE 한국역학회
Korean Society of Epidemiology



대한예방의학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